



봉우 컬럼

입소문이 무섭다

인천에서 예배를 마치고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방문한 김슬리 목사가 족발을 잘 먹더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족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장로가 “목사님, 정말 족발 맛있는 곳이 있어요. 전주 인덕원 다리 밑에 있는 족발집인데, 이 집 족발 한 번 먹으면 다른 것은 못 먹어요. 전국 어디든 배달돼요.”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전주교회 담임인 황해선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유명하다는 족발을 기도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전주교회 장로가 족발과 붕어찜을 보내왔는데 소문대로 그 맛이 대단했다. 입소문이 이렇게 무섭다. 전주 족발집 이야기를 인천에서 했으니 그 입소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말이 순간 세계를 누빈다. 나는 입당예배나 창립예배에 가면 입소문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한다. 입소문의 주체는 고객이다. 고객이 ‘그 교회 괜찮더라’, ‘그 목사 사람이 됐더라’ 한 것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광고가 되는 것이니 고객인 성도들에게 잘하라고 강조한다. 자고로 한 사람 주위에는 약 2천 명 정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으니 입소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어느 식당에서 손님이 잘못해서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하자. 그 때 달려가 유리창이 문제냐며 어디 안 다쳤느냐고 묻는다면 그 가 아는 사람에게 ‘저 식당 주인이 아주 좋아’ 할 것이고,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 대박집이 된다. 반대로 이 상황에 경찰을 부른다면 그 사람이 나가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결국 쪽박집이 되는 화를 부르게 된다. 고객이 어떻게 말하게 하느냐는 고객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 고객의 진심을 버리지 않는 사업가, 정치인,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입소문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자기 관리 못하면 망한다

사회가 점차 투명도가 높아지면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신없이 성장가도를 달리던 시절에는 웬만한 불법이나 탈법에 대해 눈감아주거나 불가피성을 피력하며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사청문화회에서 진행되는 검증과정을 보아도 고래적 일부터 지극히 작은 일조차 대중 넘어갈 수 없는 시대이다. 그만큼 사회지도층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욱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지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다, 블랙박스다, 스마트폰 등이 넘쳐나기에 언제 내 일거수일투족이 타인에 의해 찍혀 온라인상에 퍼져나갈지 알 수 없는 시대

회개하는 사건이 나온다(삼하11, 12장). 목사가님이 언젠가 기도원 산상집회 설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죄는 문제될 게 없다.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 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착각하다가 사울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해간다.” 지금도 불꽃같은 눈초리로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공든 탑이 무너지라’는 속담은 옳지 않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공든 탑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혹과 싸우신다고 고백하신다. “수많은 유혹이 늘 따라온다. 특히 사업을 했던 전력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눈에 보이기에 더욱 유혹이 온다. 돈, 명예, 정치, 이성 등등의 유혹에서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종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 자신과 싸운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수많은 유혹에서, 내 속사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길뿐이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있어 하나님이 함께



“기토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오직 기토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다.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던 압채족이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 신상이 털리는 일들이 심심찮게 뉴스를 타기도 한다. 각종 범죄행위가 CCTV에 찍혀 움작달작 못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곳곳에 눈이 있어 사생활침해의 부작용까지 거론되기도 하지만, 워낙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다보니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동네 골목 구석 구석에 날로 CCTV가 늘어간다. 인간의 눈도 이런 문명의 이기를 빌어 보이지 않는 곳들을 탐지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을 터, 성경에도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줄 착각하고 완전범죄를 획책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대성통곡하며

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내 가정을 점검하고, 내 사업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겐 늘 죄의 소원이 도사리고 있다. 사도 바울도 속사람이 서로 싸운다고 그 고충을 토로하지 않던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2~24). 사도 바울도 자기 관리에 얼마나 애썼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목사님도 많은 유

하지 않는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전 반공구호 중에 ‘초전박살’이라는 말이 있었다. 적의 도발을 초전에 봉쇄하여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다짐이었다. 죄를 다루는 신앙의 자세에 아주 시의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죄의 유혹을 초전에 박살내지 못하고 두었다가는 그 죄에 먹혀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죄는 문틈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다가 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대문으로 나가버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코스타리카 집회

9월 15일(화) ~ 25일(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단6:1~28)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다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까? 취직이 안 됩니까? 실직했습니까? 당장 돈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속을 썩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집이 안 팔립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하면 ‘염려’입니다.

다들 많은 염려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삶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네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곧 병에 걸렸거나 취직이 안 되었거나 실직을 했거나 돈이 없거나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나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나 집이 안 팔릴 때나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좋다는 병원도 다녀봤을 거고, 여러 군데 이력서도 내보고, 애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인내하고 충고하고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 되었지요? 하지만 아직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방법, 아직 남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강제퇴직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여 살릴 가족 때문에 온갖 방법을 통해 취직하려 하였으나 안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여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

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24절을 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하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총알 없는 총은 총이 아니고, 돈이 없는 지갑은 지갑이 아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듯,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일진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인바(삼상12:2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죄까지 짓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전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궈냈고, 기도를 통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켰으며,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켰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사벨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자 엘리야는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왕상17:1). 온 천하가 가뭄으로 불타습니다. 3년 반이 흘렀을 때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

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왕상18:37).

출애굽 당시 모세의 일생을 보십시오. 모세가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잡으러 오고 앞은 홍해로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부짖고 통탄하고 탄식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

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출14:15~16). 그리고 또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출15:25).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이고(단6:18~23),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데 적극 협조한 것입니다(느1:4~2:8). 엘가나의 첫 부인인 한나는 브닌나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만사를 변화시키셨는가 하면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면서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삼상1:10~19).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였고, 공생애 기간 중에도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제 목회 30년은 기도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하루 7시간씩 기도했기에 능력이 제게 임했고, 귀신을 쫓을 수 있었으며, 교회가 부흥했고,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기도가 끝난 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고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 밖에 없습니다(살전5:17).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6: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고민한다고 키를 한 자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약4:2). 기도하는데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모든 일에 기도하여 만사 형통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은혜와 축복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능력의 크기가 달라지며, 기도하는 만큼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의 무릎뿐이다

해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도전을 받고 기도로 승리하여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가 바로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 케문스 윌슨입니다. 윌슨은 성공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호텔에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그 많은 호텔 객실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지요. 기도가 그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게요?” 하시는 분들, 그러다마다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서부활극과 같은 성도인생

미국의 서부활극을 보면 중간쯤 해서 반드시 주인공이 곤경에 처하게 되어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대목이 나오곤 한다. 흑악당들에게 잡혀가서 린치를 당하거나 진퇴양난의 모험에 빠져 재기불능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이제 저 사람은 죽겠구나’ 하고 한숨을 쉬려하면 아이들은 대뜸 “저 사람 안 죽고 살아 나와요.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영화가 되나요?”한다. 과연 서부활극에는 하나의 도덕성이 있어 반드시 권선징악의 해피엔드로 끝나게 마련이다. 성도의 인생은 서부활극과 같아 반드시 승리와 축복의 해피엔드로 끝나도록 각본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4)고 노래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렵고 무서운 시험을 만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도우시어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성도의 인생은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축구시합의 녹화방송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한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축구시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2:1로 역전하여 승리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방송되었다. 다음날 TV로 재방송을 보니 월등한 상대가 전반 한골을 먼저 넣고 파죽지세로 공격하니 응원하던 국민들은 손에 땀을 쥐며 ‘아! 지겠구나’ 하며 한숨을 내쉴다. 그러다가 문득 아까 뉴스시간에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면서 비로소 안심하게 된다. 아나나 다름까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고 전세가 역전되더니 경기종료를 앞두고 역전골을 넣어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 성도는 이미 결론난 시합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아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지금은 내가 곤경에 처해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마침내 승리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축구구경 하듯, 마음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즉 결론적 믿음인 것이다. 이 종말적 승리를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고후1:21~22). ‘내가 장차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에서 헤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건강을 받아놓고, 축복을 받아놓고, 천당을 확보해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6:17~18).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생각이 결과!

알프스를 구경하던 한 청년이 아주 깨끗한 호수를 발견하고 그 물을 손에 받아 마셨습니다. 물은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이제 갈증도 해소되었겠다 다시 본격적으로 알프스 산을 구경하려던 청년의 눈에 한 경고판이 보였습니다. “poison(독)”, 이 호수의 물은 독이 들어있다는 글귀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부터 청년의 몸에서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구토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은 창백한 얼굴로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경고판을 본 후로 열이 나고 구토증세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poison(독)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poisson(낚시금지)이라고 쓰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 청년은 열도 내리고 구토증세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적극적인 생각은 적극적인 삶을, 나태한 생각은 나태한 삶을 낳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ream is nowhere(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가 띄어쓰기 하나로 ‘Dream is now here(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로 바뀝니다. 생각 하나 차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이고, 생각을 키우면 길이 보입니다.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중심편집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7:24)



::To Be Succeeded::

역지사지로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결혼 후 20년 이상을 함께 지내다 헤어지는 ‘황혼 이혼’의 비율이 무려 28.1%를 차지한다고 한다. 백년해로(百年偕老)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다. 모진 세과 다 이기고 이제는 그간의 사랑과 믿음, 희생의 결실을 보며 행복을 누리야할 시기에 서로 등 돌려 각자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전문가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이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했더라면 이토록 대립과 갈등이 뿌리 깊어지지는 않았을 거란 의견이다. 비단 부부사이 만이 아니다. 일명 ‘사장 마인드’와 ‘월급쟁이 마인드’의 차이로 경영자와 직원 사이에도 기업과 개인 모두의 상생을 위해 역지사지의 자세는 필요하다. 홍경호 회장의 굽네 치킨은 직원과 소비자를 역지사지의 대상으로 하는 경영철학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례다. 2,000만원도 안 되는 자본금으로 쓰러져 가는 치킨 집을 인수, 리뉴얼하여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자, 또는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레드오션

으로 분류되어 기피사업으로 꼽혔다. 잘 나가는 다른 대형 치킨 브랜드들이 이미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가맹점포 수를 늘리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메뉴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수익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거기에 직원들을 위해 자기계발 교육비, 출산장려금, 해외연수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더니 동종업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 분야의 인재가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점포수를 1,000개 이상으로 무리하게 늘리지 않겠다는 계획, 현재 점포들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는 전략 또한 가맹 점주들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다. 이 모든 것은 마침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연결됐다. 역지사지와 책임의식으로 인한 상생이 곧 기업의 성장발전으로 이어져 결국 홍 회장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셈이다. 현대 연극 장르 중 ‘즉흥 연기’는 아무런 대사, 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분야의 대가 캐시 샐리트는 말한다. 즉

흥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에 대한 ‘이해’와 ‘동조’라고.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배우와 관객 모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신선한 감동을 받을 수도, 반대로 최악의 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지사지는 곧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또한 역지사지는 나를 돌아보아 ‘네 탓이야’가 아니라 ‘내 탓이오’를 고백하게 한다. 남에게 있는 티만 비난하던 내가 내 눈의 돌보 발견하고 겸허히 낮아지게 만드는 것 또한 역지사지의 정신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사 55:8~9). 그렇기에 그 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는지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야 판별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호6:6) 이유이다. 역지사지하여 나를 알고 상대를 알자. 그리하여 오해와 반목을 넘어 신뢰와 성장으로, 아름다운 화합과 명작으로 우리네 인생과 영생을 빛나게 하자.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필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정(情)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국가로 선조들은 농번기 때마다 두레를 조직하여 서로의 농사를 도와주는 품앗이를 하였습니다. 또, 지금도 시장에 가면 물건을 구입할 때 ‘땀’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어디에도 없는 깊은 정의 표현입니다. 유니세프의 산하기구인 2013년 한국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후원자수는 34만 800명으로 후원금은 약 1,160억 808만 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기부금 순위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세계 26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 중 미국과 GDP가 무려 14배나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하면 이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후원자의 숫자는 1994년 1,183명에서 2012년 34만 8,861명으로 300배 이상 늘었고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어릴 적 후원국에서 나누어준 분유 등을 받아먹고 학용품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덕택으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정상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거나 명절을 홀로 외롭게 보내야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정과 나눔을 아름답게 표현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말 한마디의 힘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씨의 일화이다. 그가 대학병원 근무 시절 담당했던 한 환자가 고등학생 남매를 키우던 홀어머니였는데, 위암이 온몸에 퍼져 임종이 임박했음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남매와 함께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박경철 씨가 하루는 그 남매에게 무심히 컵라면을 끓여주며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넸고, 이후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여 남매는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박경철 씨에게 한 젊은 신부님이 찾아왔다. 얼굴에 인자한 빛이 가득한 그 신부님은 갑자기 정중한 감사인사를 했다. 어리둥절한 박경철 씨에게 신부님은 자신이 그 때 컵라면과 함께 위로를 받았던 남매의 오빠이며, 당시 박경철 씨의 한마디가 남매 인생의 등불이 되어 올바르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사실 박경철 씨는 그때 자신이 뭐라고 했

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다만 신부님이 들려준 이야기로는 “나도 아버지를 일찍 잃었다. 부모를 잃은 너희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린 자식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아이들이 혹시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걱정되어 더 아프니 찢찢하고 울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박경철 씨는 깨달았다고 한다. 자신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고, 영향력이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 선한 영향력을 위해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일화처럼 우리는 작은 말 하나도 선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 특히 성경은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이며, 사람은 한마디 말로 의롭다함도, 정죄도 받는다고 말

씀하셨다(마12:35~37).

사도 야고보 역시 누구든지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헛된 경건이요(약1:26),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므로(약3:9~12)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악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녔는지 “혀는 곧 불이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 것이며...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약3:6,8)고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역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주변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가 창조하는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인가, 악하고 불행한 세계인가?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13세기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17년 동안 그 당시만 해도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의 여러 도시들과 몽고, 미얀마, 베트남까지 다녀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제노바 해전에 출전하였다가 패전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1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가 여행한 나라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이때 작가 루스티켈라가 받아 적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쳐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가 진실이라네. 사실은 내가 보고 겪었던 일을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믿는 우리가 가야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로 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친히 천국에 대해서 거듭 말씀 하셨습니다. 태평양 너머에 미국이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

기를 통해서 그곳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법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준비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만성통증의 원인과 개선방안

만성통증 및 만성질환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잘못된 수면습관이다. 수면은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수요소이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수면습관을 가진 사람이 항상 무기력한데는 신체 및 두뇌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시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추게 되는데, 이때 산소부족으로 신체와 뇌의 착오가 발생하여 저산소증 상태로 들어간다.

두 번째, 감염과 항생이다. 체내에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세균에 심각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세 번째, 신체 및 심리적 트라우마다. 신체적 트라우마는 관련 기능을 퇴화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는 우울증이

나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네 번째, 영양 섭취 및 소화기능의 문제다. 비만과 과체중은 신체의 염증성 상태로 당뇨병과 심장병뿐 아니라 만성통증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다섯 번째, 의약품이다.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위산이 줄어들어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결핍, 장내 박테리아의 이상 증식,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만성통증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소개한다.

1. 저염증 식단으로 현미, 생선, 닭고기, 신선한 과일을 먹는다.
2. 섭취한 음식과 느낌을 식사일기로 작성한다.
3. 커피, 차, 알콜, 담배 등과 같이 몸에 해로운 식품을 절제한다.

4. 날짜별로 컨디션과 통증을 메모한다.
 5. 매주 1가지 새로운 종류의 식단을 추가한다.
 6. 매주 식단변화로 인한 체중변화를 점검한다.
 7. 오랜 습관은 고쳐지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오는 슬럼프에 대비해야한다.
 8.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제를 이용한다.
 9.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
 10. 기도는 불면, 우울,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두통, 관절염 등 만성통증을 개선시켜준다.
- 만성통증의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명품인생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신발가게에 들러 꽃장식이 달린 신발을 신고 활짝 웃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천으로 만든 누빔 지갑에서 지폐와 상품권을 꺼내 물건 값을 지불하는 모습 또한 방송매체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38,000원짜리 발 편한 겹점신발, 누빔 천으로 만든 4,000원짜리 손지갑, 그레이 색깔 타조 백,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때 착용한 선글라스, 모두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인데 대통령이 사용한 모든 상품은 급물살을 타고 다 품절이 된다 하니 웬지 마음이 뿌듯하더군요.

명품인생은 자신을 명품으로 포장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아무리 싸구려 옷, 시장 물건이라도 명품인생이 입으면 명품이 되고 삶 자체가 타인에게 명품임을 확인시켜 줄 테니까요!

얼마 전 모 백화점 명품관에갔는데, 명품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귀한 산삼일수록 산삼이 사람을 고른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명품 역시 간간했습니다. 재질이나 디자인, 색상, 바느질, 포장, 심지어 디스플레이는 물론 가격까지 다르기 때문에 명품의 신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베네딕트의 ‘명품인생이 되라’ 중에서 명품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다른 제품과 다르다. 둘째, 다른 제품보다 더 낫고 더 뛰어나다. 셋째, 다른 제품보다 특별하다.”

명품인생을 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뛰어나게, 특별하게, 구별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품열매는 아무에게나 자신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기술은 리더십의 언어이다

경우에 합당한 많은 아르새긴 온정반에 금사과나라 (잠언 25장 11절)